

유세 재개 바이든 “나는 다 걸었다”...다시 트럼프 공격

“트럼프 재임시절 ‘오바마케어’ 폐지·부자 감세 추구” 경합주 네바다서 흑인·라틴계 등 핵심지지층 다잡기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16일(현지 시간) 네바다주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전미유색인종지위향상협회(NAAP) 행사에서 연설했다.

지난 13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피격 사건 이후 사흘만에 처음으로 공개 유세를 재개한 것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자신과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 경쟁이 치열해 이번 대선의 승패를 좌우할 수 있는 경합주인 네바다 유세에서 이번 대선에 모든 것을 걸었다며 단호한 배수진을 치고 나섰다.

그는 이번 총격 사건을 계기로 정치적 과열과 대립을 경계하면서 도 진실을 말하는 목소리를 멈춰선 안 된다며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강력한 정책 비판도 재개했다.

흑인과 라틴계 등은 바이든 대통령의

핵심 지지층으로, 최근 동요 기미를 보이자 이들을 다잡기 위한 시도로 풀이된다.

바이든 대통령은 유세에서 “지금은 긴장된 시국이다. 불과 며칠 전에 트럼프에 대한 암살 시도가 있었다”면서 “우리 정치는 지나치게 과열됐다. 우리 모두는 열기를 낮출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다.

또 그는 “모든 종류의 폭력을 규탄해야 한다. 정치 폭력 뿐 아니라 모든 종류의 폭력에 반대한다”면서 “그것이 통합”이라고 규정된 뒤 경찰의 과잉 진압으로 숨을 거둔 흑인 조지 플로이드 사례를 비롯해 2021년 1·6 의회 폭동, 유배다 총격사건 등을 만연한 폭력의 사례로 거론했다.

그는 이어 “폭력에 이어 총기 문제에 대해서도 이야기해야 한다”면서



16일(현지시간) 미국 네바다주 라스베이거스의 한 시장을 방문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어린이와 포즈를 취하고 있다. 이날 바이든 대통령은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전미유색인종지위향상협회(NAAP) 창립 115주년 총회에서 연설했다. /AP=연합뉴스

“미국에서 많은 어린이들이 총기 사고로 죽어간다. 이것은 미친 일”이라고 지적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또 “정치의 열기를 낮추라는 것이 진실에 대해 말하는 것 중 단하라는 의미는 아니다”라면서

“나는 한 번도 누구에게 지옥을 선사한 적이 없다. 나는 다만 지옥이라고 생각되는 것에 대해 진실을 말할 뿐”

이라며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포문을 열었다.

그는 “트럼프는 재임 시절 흑인을 위한 ‘오바마 케어’를 중단하고, 부자 감세를 추구하고”면서 “트럼프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데 이 말도 하게 해달라. 트럼프가 아니라 우리 행정부에서 흑인 가정의 주머니에 돈이 들어갔다”고 자신의 업적을 강조했다.

그는 “대기업을 위한 트럼프의 세금 정책과 달리 나는 1천명의 억만장자에게 부유세를 내도록 할 것”이라며 “재선에 성공하면 100일간 내가 할 일들이다. 나는 투표권 보호 입법을 하고, 낙태권도 입법화할 것”이라고 밝히며 트럼프 전 대통령과 차별화했다.

민주당 내부에서 고령 우려에 따른 전방위 후보 사퇴 압박을 받고 있는 바이든 대통령은 “나는 젊었고 지금은 늙었다”면서 “의인이 버림받는 것을 보지 못했다. 나는 진실을 알고, 무엇이 옳고 그른지 안다. 나는 이 일을 어떻게 하는지 알고 있다”며 대선 도전 의지를 거듭 피력했다. /연합뉴스

‘재산 470억’ 총리 가사도우미...퇴직 후 헬기 타고 여행

‘최빈국’ 방글라데시서 대규모 부패 사건 잇따라

방글라데시에서 대규모 부패 사건이 잇따라 불거지자 장기 집권 중인 셰이크 하시나 총리가 이를 근절하겠다고 강력 대응 의지를 드러냈다.

15일(현지시간) 외신에 따르면 하시나 총리는 최근 계속 터져 나오는 자국 내부 스캔들과 관련해 “이러한 엉망진창 상태는 깨끗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부패는 오래 계속되고 있는 문제”라며 “(정부는) 이와 관련해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하시나 총리는 최근 현지 언론 등에 보도된 자신의 전 가사 도우미 관련 부패 의혹을 지적했다.

하시나 총리 참여 행사 때 물을 나르

는 등 허드렛일을 해 ‘물’이라는 별명을 가진 이 도우미는 3천400만달러(약 470억원)나 되는 막대한 재산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언론은 이 재산에 대해 방글라데시 일반 국민 한 명이 1만3천년 넘게 모아야 하는 어마어마한 규모라고 보도했다. 세계은행(WB)에 따르면 현재 방글라데시의 1인당 국내총생산(GDP)은 약 2천529달러(약 351만원)다. 세계 최빈국 중 하나로 꼽히는 나라다.

이 도우미는 현재 헬기를 타고 여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현지 매체 다카 트리뷴은 해당 도우미가 그의 자리를 이용해 로비, 입찰 조작, 뇌물 수수 등

에 관여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하시나 총리는 “그가 어떻게 그렇게 많은 돈을 벌 수 있었는가”라고 지적하며 “이 일을 알게 된 후 즉시 대응 조치를 취했다”고 말했다.

앞서 방글라데시 반부패 위원회는 최근 베나지르 아흐메드 전 경찰청장에 대한 조사에 돌입했다.

하시나 총리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아흐메드 전 청장은 수백만달러를 착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야권은 정부 비판 목소리를 높였다. 야당 방글라데시민족주의당의 대변인인 A.K.M 와히두자만은 “하시나의 하인이 저 정도로 천문학적 돈을 벌었다면 그의 보스는 얼마나 많이 벌었는지 상상에 맡긴다”고 비교했다. /연합뉴스

“수단 내전 피란민 1천만명 넘어”...인구 20% 해당

15개월여 이어진 내전 기간 수단에서 1천만명 넘는 피란민이 발생했다고 국제이주기구(IOM)가 16일(현지시간) 밝혔다.

IOM은 이날 발간한 보고서에서 “지난 해 4월 내전 발발 이후 220만명 이상이다 큰 나라로 도피했고, 780만명의 수단 내에서 피난처를 찾았다”며 이는 전체 인

구의 20%에 해당하는 수치라고 전했다.

여기에 내전 발발 전 최근 몇 년간 여러 지역의 분쟁으로 집에서 쫓겨난 국내 실향민(IDP) 280만여명을 포함하면 수단 전체 인구의 4분의 1을 넘는다. /연합뉴스

‘조선인 136명 수몰’ 해저탄광 유골 발굴 추진

시민단체, 지자체에 서류 전달 “유족 고통화로 더 기다리지 못해”

일본 시민단체가 일제강점기 수몰 사고로 조선인 136명이 목숨을 잃은 혼슈 서부 야마구치현 조세이 탄광 주변에서 유골 발굴조사를 추진한다.

시민단체 ‘조세이 탄광 수몰사고(水非常)를 역사에 새기는 모임’(이하 모임)은 유골 발굴조사 실시를 위해 탄광 소재지인 우베시에 공사 관련 서류를 전달했다.

모임은 기자회견에서 크라우드 펀딩으로 자금을 모아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달 25일 잠수 조사를 실시하고, 10월에는 강도 입구 부근에서 공사를 시행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이노우에 요코 모임 공동대표는 기자회견에서 “유족 고통화로 더는 (조사를) 기다리지 못하는 상황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일본조세이탄광희생자 한국유족



일본 시민단체가 조세이 탄광 수몰사고 희생자를 추모하고 있다.

회’의 양현 회장도 “유골을 발굴해 (고인이) 고향에서 영원히 잠들 수 있도록 사고 경위를 둘러싼 진상 규명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모임은 강도 내부가 아직 조사되지 않은 상태이며, 관련 부지에 대해 소유권을 주장하는 개인과 단체는 없었다고 설명했다.

조세이 탄광 참사는 1942년 2월3일 우베시 해안에서 약 1km 떨어진 해저 지하 강도에서 발생했다. 강도 누수로 시작된 수몰 사고로 조선인 136명과 일본인 47명 등 모두 183명이 사망했다.

그러나 지금까지도 희생자 수습과 사고 경위를 둘러싼 진상 규명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모임과 한국인 유족들은 지난해 12월에도 도쿄 중의원(하원) 의원회관에서 열린 유골 발굴 촉구 행사에서 조사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일본 정부는 당시 “유골 매몰 위치와 깊이 등이 분명하지 않아 현실적으로는 유골 발굴을 실시하는 것이 곤란하다”며 당분간 조사를 추진할 뜻이 없음을 밝혔다. /연합뉴스

www.kjdaily.com

◀ 광주매일신문을 펼치면 광주·전남의 미래가 보입니다

지역의 품에서, 독자의 곁에서 늘 사랑받는 신문이 되겠습니다!!

시내 지역

- 중앙지국 222-8171
- 산수지국 224-4188
- 학운지국 673-6836
- 화정지국 372-9140
- 금호지국 376-7153
- 풍암지국 603-0311
- 노대지국 674-3581

지방 지사

- 목포지사 061)270-8689
- 동문지사 061)278-0740
- 남문지사 061)245-3797
- 신안지사 061)980-8300
- 순천지사 061)746-1600
- 여수지사 061)651-6433
- 나주지사 061)335-0005
- 광양지사 061)793-6800
- 구례지사 061)782-4696
- 담양지사 061)383-5566
- 곡성지사 061)362-5746
- 고흥지사 061)832-6290
- 보성지사 061)852-6644
- 화순지사 061)373-7795
- 장흥지사 061)863-6800
- 강진지사 061)432-8899
- 해남지사 061)535-5849
- 영암지사 061)473-7151
- 오치지국 261-9461
- 문흥지국 261-9462
- 일곡지국 573-3200
- 첨단지국 971-7374
- 치명지국 371-9584
- 수완지국 955-0451
- 광산지사 944-0993
- 무안지사 061)453-3645
- 함평지사 061)322-0882
- 영광지사 061)353-5133
- 장성지사 061)394-3636
- 완도지사 061)555-0134
- 진도지사 061)542-4330

▶ 광주광역시 남구 천변자로 338번길 16(구동1-21) ▶ 대표전화:062)650-2000 ▶ 구독문의:062)650-2022